“참회합니다” 임란 왜장 후손, 가산사 참배

10월 10일, 가산사 ‘참회와 화해’
일본군 후손 호국충혼탑서 ‘참회’
임란 433년만 한일 후손 한자리
진우 스님 “치유-미래 여는 계기”

유재상 충청지사장



10월 10일 옥천 가산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및 한일 평화의 날’ 행사에서 임진왜란 참전 일본군 후손들이 머리 숙여 참회의 뜻을 밝혔다.

임진왜란 발발 433년 만에 참전 일본군 후손이 한국 사찰을 찾아 조상들을 대신해 참회하고 양국이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옥천 가산사(주지 지원 스님)는 10월 10일 호국충혼탑 앞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및 한일 평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지 지원 스님이 3년 전 일본 교토의 조선인 ‘귀무덤’ 위령제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참혹한 역사를 목도하고 진정한 참회와 화해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 김문길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와 함께 추진해 마련된 자리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가산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가산사 주지 지원 스님을 비롯해 이종학 충무공 이순신 장군 후손, 황의옥 황진 장군 후손, 서재덕 서예원 진주 목사 후손, 류근철 류형 장군 후손과 히로세 유이치 일본군 도리다 이치 장군 후손, 히사다케 소마 일본군 쵸소 카베모토치카 장군 후손 등이 참석했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광 육군 제37사단장,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법회는 김형길 가산사 신도회장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해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 법주사 남전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이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순절한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했다.

일본군 후손 대표 히로세 유이치(70) 씨와 히사다케 소마(24) 씨는 “조상들의 침략과 폭력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히사다케 소마 씨는 “433년 전 조상의 죄를 대신해 참회한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히로세 유이치 씨는 “전쟁의 상처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 법회가 양국을 잇는 평화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스님은 기념사에서 “임진왜란의 아픈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참회와 화해,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433년 만의 결단이자 한일 양국이 함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평화는 시작된다”며 “오늘의 법회가 한일 양국이 새로운 신뢰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영규대사와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기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의 뿌리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열자”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참회와 화해를 통해 인류 보편의 평화가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슬픈 역사가 오늘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며 “한일 평화도, 남북 평화도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강할 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광복 80주년 기념위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임진왜란의 상처를 잊지 않되, 그것을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로 바꿔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다짐하는 뜻깊은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회·화해·평화’ 족자 서명식이 진행됐다. 일본군 후손은 ‘참회’가 적힌 족자에, 조선군 후손은 ‘화해’ ‘평화’가 적힌 족자에 서명해 교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화해의 뜻을 나누었다. 가산사는 일본군 후손들에게 ‘동아시아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를 전달했다.

불갑사, 만당 스님 100재 및 주지 고불식 봉행

11일, 만당 스님 100재 추모
덕상 스님 “청정 계율로 정진”



10월 11일 영광 불갑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만당 스님 열반 100재 및 신임 주지 덕상 스님 고불식에 참석한 스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10월 11일 대웅전에서 만당 스님 열반 100재를 맞아 신임 주지 덕상 스님의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만당 스님의 원력을 기리고 신임 주지 스님의 출발을 축원하는 의미로 엄숙하고 장엄하게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백양사 원로의원 암도·성오·진공·일수·원진·수인 대종사와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율원장 법장 스님, 종회의원 덕유·설암 스님 등 백양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함께했다. 또 김강헌 영광군의장과 임영민·정선우·강필구 군의원, 정길수 불갑사 신도회장, 박성기 동문회장, 강순희 합창단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신임 주지 덕상 스님은 취임 인사에서 “오늘 은사 스님을 추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부족하지만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며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불문을 통해 “새로이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음을 부처님 전에 고한다”며 “만당 스님의 깊은 원력과 청정한 수행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뜻을 이어 불갑사의 법등이 꺼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과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며, 청정한 계율로 불갑사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덕상 스님은 2007년 마곡사 계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 승가대학과 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이후 공주 영은사 주지와 총무원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교육부 복지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9월 16일 불갑사 주지로 임명받아 이날 공식 취임했다.

불갑사 신도를 대표해 박성기 동문회장과 손옥희 합창단장, 강순희 부회장이 덕상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만당 스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새 주지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며 “불갑사가 앞으로 화합으로 스승의 뜻을 이어 도량을 더욱 청정히 세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불식에 앞서 만당 스님의 100재를 맞아 도량에는 추모기도와 불갑사 합창단의 조가가 이어졌다. 덕상 스님은 “은사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아직도 도량에 머무는 듯하다”며 “그 뜻을 이어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빛나도록 하겠다”고 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틱 뜨엉 탄 스님, 해인사 도보순례 이유는

베트남 교민 사찰 창건 발원
“힘들지만 걸음걸음이 수행”


천안 베트남 사찰 원오사 주지 틱 뜨엉 탄 스님이 10월 10일 합천 해인사까지 215km를 걷는 도보순례에 나섰다.

천안 베트남 사찰 원오사 주지 틱 뜨엉 탄 스님은 10월 10일 순례에 나선 틱 뜨엉 탄 스님은 “한국의 삼보사찰인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도보로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불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발원문을 통해 “광주 길상사 창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원한다”며 “순례 동안 하루 한 끼만 공양하고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자며 인연 있는 분들의 시주로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0일 천안 원오사를 출발해 18일까지 청주, 회인, 기대리, 하신안리, 자산, 별고을을 거쳐 해인사까지 215km를 하루 약 30km 걷는다. 스님은 지난해 순천 송광사까지 약 270km를 8일간 걷는 도보순례를 진행한 바 있다.

틱 뜨엉 탄 스님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화롭고,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며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모든 생명은 하나”…현덕사 동식물 천도재

10월 11일 개산 26주년 맞아
반려동물 천도까지 확대 진행


강릉 현덕사는 10월 11일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서원했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는 10월 11일 개산 26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고 생명존중의 서원을 새롭게 다졌다.

이날 법회는 개산 기념법회와 동식물 합동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천도재는 의료 실험, 환경 파괴 등으로 희생된 생명과 반려동물의 영가를 위로하고, 인간의 탐욕을 참회하는 의미를 담았다.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前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상원사 수좌 청암 스님,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 김기호 현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경 스님은 법문에서 “모든 생명은 한 몸이기에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며 “천도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나부터 세상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주지 현종 스님은 “26년간 이어 온 동식물 천도재는 불교계 전체가 환경과 생명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불국토 구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화엄사, 제21회 화엄문화제 성료

10월 10~12일, 요가·음악제 등



구례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바람이 물을 스칠 때’를 주제로 ‘제21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화엄문화제는 10일 각황전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찰을 지킨 차일혁 경무관의 뜻을 기리는 추모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종장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괘불재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둘째 날인 11일 오전에는 보제루 앞마당에서 ‘제11회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 제5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회’가 열렸다. ‘오래된 미래, 더 새롭게’를 주제로 전남 요가 동호인, 구례·마산면 주민, 스님과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오후에는 웅전 앞마당에서 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화엄음악제 ‘바람이 물을 스칠 때’가 진행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문화제는 불교와 예술,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라며 “올해는 ‘미래로 100년’ 문화공간 사찰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 화엄사가 지역 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제21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

49일간 금강경 법문·천도재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49일간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을 공부하며 신심을 증장하는 대법회를 개최한다.

송광사는 10월 12일 경내 사자루에서 ‘제21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2005년부터 시작된 금강산림대법회는 〈금강경〉을 주제로 큰스님들을 초청, 감로법문을 듣는 법석이다.

매주 1회씩 49일간 경전의 깊은 뜻과 지혜를 배우며, 영가천도재도 함께 봉행하는 송광사의 대표 법회로 자리매김했다.

법회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경내 사자루에서 진행된다.

방장 현묵 스님은 입재 법문을 통해 “참된 지혜는 경전을 읽는 자의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금강경〉의 정신”이라며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우치기 위해 설하신 경전이기에, 모든 부처님과 깨달음의 법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빗속 울린 자비 선율, 수덕사 산사음악회

10월 13일 대웅전 특설무대서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0월 13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3회 산사음악회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교구 스님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재구 예산군수 등이 참석해 가을비 속에서 산사의 선율을 함께 했다.

이날 도신 스님은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예산군민을 위해 수해 복구 지원금 2000만 원을 최재구 예산군수에게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정법사, 역대조사 다례재 봉행

10월 3일 개산 제113주년 행사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창건 제113주년을 맞아 10월 3일 만불보전에서 제4회 역대조사 다례재 및 만발공양을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창건주 구하 대선사와 초대 포교사 경봉 대선사, 배달유치원을 창립한 오택언 독립지사 등 역대 조사를 기리는 행사로, 영축다도회 창립 25주년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함께 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지 광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4회째인 다례재와 만발공양은 광복 80주년과 영축다도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종교평화프로그램 ‘수류금산’ 성료

10월 2~4일 모악산 성지순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김제 모악산 일대에서 ‘종교평화 문화 프로그램 수류금산’이 진행됐다.〈사진〉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제시가 공동 기획하고 금영회(회장 이지복)가 주관한 문화여행이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금산사, 금산교회, 수류성당 등 모악산 인근의 종교 유적과 벽골제, 새만금 방조제, 죽산마을 등 지역 관광지를 둘러봤다. 또 금산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